

The opening ceremony of "Nature Hug" Agency

發

“자연품은” 사업단 발대식

展

입사: 2011년 12월 28일 오전 11시 장소: 라비돌 호텔 소강당(B1)



‘자연품은’ 닭고기, 비상을 준비한다

농가, 화성시, 한강씨엠, ‘자연품은’ 사업단 발대식

최근 WTO, FTA 등 축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해 국내 축산업 환경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과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닭고기 업계도 마찬가지.

고품질의 닭고기 생산을 통해 소비자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닭고기 생산 전문업체에서는 각 지자체와 공동으로 새로운 브랜드육을 개발하

고, 이를 육성하고 있다.

닭고기 생산 전문 업체인 한강씨엠 주식회사(대표이사 박길연)도 화성시와 화성시 내 계약 사육농가와 손잡고 ‘자연품은’ 브랜드를 육성시키고자 팔을 걷어 부쳤다.

한강씨엠(주)는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화성 소재 라비돌호텔에서 박길연 대표이사를 비롯 농가대표 김상관 사장, 화성시 남기연 축산과장, 사육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시와



화성시 소재 계약사육농가가 참여하는 '자연품은' 사업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 농가대표인 김상관 사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FTA 등으로 축산인들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육농가를 비롯 업계 관계자들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때에 ‘자연품은’과 같은 고품질 브랜드 제품으로 경쟁한다면 수입 개방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연품은’ 사업단은 육계사육농가(15호), 종계장(2호), 유통업체(1호, 한강씨엠)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사육규모는 육계 605,000수, 종계 85,000수 정도다.

화성시, 농가, 업체가 혼연일체, ‘자연품은’ 사업단

‘자연품은’ 사업단은 농가, 화성시, 한강씨엠이 각각 농가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개선과 농가의 소득 향상, 원가 경쟁력 확보, 환경 친화적이고 위생적인 안전한 축산물 공급 및 화성시 축산물 브랜드 홍보·확대라는 목적을 가지고 탄생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자연품은’ 사업단은 친환경 및 HACCP 인증 확대, 환경개선사업 지원, 현대화 시설 자금 및 신축자금, 교육지원, 농장수익 안정성 확보, 사업단 기금 지원 등 총 6가지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친환경 및 HACCP 인증 확대를 위해

한강씨엠에서는 고품질의 병아리를 확보하고자 축탁수의사를 통한 친환경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당 20원의 항생제 대체제(면역증강제)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화성시와 함께 HACCP 인증 획득을 위해 무상 인증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강씨엠과 화성시는 연간 10농가를 선정해 낱플, 흰, 단열, 발전기 등 축산기자재 구입비용을 무이자로 지원(1년 5회 분할상환)하는 한편 시설 현대화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계절별 사양관리 세미나를 비롯 축산박람회·선진 양계산업 견학 등 다양한 교육지원을 할 예정이며, 농가의 수익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축 공제보험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kg당 15원의 ‘자연품은’ 운영수료를 적립하여 농가에게 지급할 예정인데, 자금운영을 비롯 ‘자연품은’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과학문명이 발달할수록, 생활의 편리함이 더할수록, 자연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듯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또한 소비자의 최대 고민인 셈이다. ‘자연품은’ 닭고기는 바로 이러한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낸 브랜드로, 안전한 먹거리는 결국 자연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농가와 화성시, 한강씨엠이 하나되어 만드는 ‘자연품은’ 닭고기가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

■ 글·김효진 기자(hj@chicken.or.kr)